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0. No. 4, pp. 229-236, 2019

ISSN 2233-4890
https://doi.org/10.15207/JKCS.2019.10.4.229

빅데이터분석을 통한 체육계 병역특례제도의 사회적 현상 및 인식분석

이현정[1*], 한혜원[2]
[1]원광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 [2]단국대학교 생활체육과 초빙교수

An Analysis of the Social Phenomena and Perceptions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System in Korean Sports Field Using Big Data

Hyun-Jeong Lee[1*], Hae-Won Han[2]
[1]Professor, Division of Sport Science, Wonkwang University
[2]Invited Professor, Department of Recreation & Leisure Sports,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체육계 병역특례와 관련된 여론, 관점과 흐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적 현상 및 인식을 분석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현상에서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법을 실행하여 토픽을 도출하고 시각화 하였다. 도출된 토픽은 '병역특례 재조명', '병역비리 논란', '체육분야 병역특례', '예술분야 대체복무 제도', '국정감사'의 5개이다. 이는 체육계 병역특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의롭고 평등부담원칙에 부합되면서도 스포츠선수의 특성이 고려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빅데이터, 잠재 디리클레 할당, 넷마이너, 체육계 병역특례, 인식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social phenomena and perception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on public opinion, views and trends related to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the sports community through Big KINDS operated by the Korea Press Promotion Foundation. To this end, the related keywords were derived and visualized by implementing a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technique to derive problems found in social phenomena based on big data analysis. The topics derived include "re-lighting special case on military service," " military service corruption controversy,"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artists " and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is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identifying accurate information on social controversies related to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the sports community and drawing up practical measures that are considered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just and equal burden.

Key Words : Big data, LDA (latent dirichlet allocation), Net Miner program,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Perception analysi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fund of Wonkwang University in 2018.
*이 연구는 2018년 원광대학교 교내연구지원비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Jeong Lee(isamlak@wku.ac.kr)
Received February 20, 2019 Revised March 28, 2019
Accepted April 20, 2019 Published April 28, 20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자 정전(停戰)국가이다. 헌법에도 근로, 교육, 납세의 의무와 함께 국방의 의무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남자들은 특별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병역법에 의거 하여 만 19세부터 일정기간의 군복무를 필해야한다. 그러나 20대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폐쇄된 일정 공간에서 제한된 자유로 18개월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에 학업이 중단되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병역의 의무에서도 병역특혜를 받을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가 존재한다. 병역특례 제도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의경, 해양의경, 의무소방원 등의 전환복무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복무기간, 주요근무처 등은 복무제도에 따라 달라진다. 체육계에도 특기를 가진 사람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받는 예술·체육 병역특례법이 1973년에 제정되어 개정, 시행되고 있다. 특례대상은 올림픽경기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한 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은 숫자는 2018년 기준, 900여명에 달한다[1]

그러나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국가에서 인정한 병역특례제도를 부정하게 악용하는 사례가 보도되며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건수는 총242건, 해외여행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귀국하지 않은 병역미필 미귀국자도 7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2]. 국가 지원 아래 전문연구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병역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일부 전문 연구원들의 부정한 방법의 출근등록과 대리 출근의 사례[3],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총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는 예술·체육 특례자들의 허위 실적 등으로 대표자격이 영구박탈 되거나 선수자격정지처분 등이 내려진 사례, 모 대학의 성악전공자 12명이 현역복무를 면탈 받고자 고도비만자로 위장하여 현역을 피하려는 사례[4] 등이 적발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5].

이처럼 예술·체육 병역특례의 경우, 병역 면탈자와 함께 병역에 관련한 문제들의 범위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적 입장으로 정의롭고 공평하게 해결해야 할 논란의 무게가 가중되고 있다. 체육계에서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을 둘러싼 병역특례가 논란이 되어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폐지와 논쟁이 국회로 까지 옮겨져 병역법 개정안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1]. 4년이 지나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야구 국가대표팀 오지환, 박해민선수의 병역특례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으며[6],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극적 우승을 거둬 금메달을 딴 손흥민, 조현우, 황의조 등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병역면제와 함께 '방탄소년단(BTS)'의 병역문제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문제로 예술과 체육계의 병역특례제도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논쟁의 대상이 된 '방탄소년단(BTS)'은 글로벌 인기아이돌로 빌보드에서 1위를 2번이나 하며 한국의 K-POP 문화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인 그룹이다. 그럼에도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각종 뉴스댓글에서 손흥민 선수의 병역면제와 대면해 논쟁이 일어났으며, 예술과 체육계의 병역특례제도 형평성, 공정성 문제에 대해 커다란 논란과 파장이 있는 상태이다.

한국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문제를 두고 특례기준을 강화 및 공정성에 대해 수차례 논란이 되어왔다[7]. 병역특례를 둘러싼 여러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병역에 관한 여러 사안들은 한국 남성들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반에 있어 중요한 문제점으로 수용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예술·체육계의 병역특례 대안 모색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론된 체육계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의견충돌과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판단적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논제로 다룬 국내 학문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체육계 병역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8], 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한 정의론적 고찰[9],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10] 등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엘리트 스포츠 선수의 병역특례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실질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체육계(체육요원)병역특례 문제에 대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현상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체육계의 병역특례와 관련된 키워드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 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을 실행하여 주요토픽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방대한 양의 자료를 한눈에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병역특례에 관련된 주요이슈의 파악 및 정의성, 형평성이 확보되고 평등부담원칙을 실현하는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스포츠 조직에 이상적인 병역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국가체육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스포츠 발전 뿐 아니라 국민적 신뢰 회복을 확보하는데 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 체육계 병역의무 및 특례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가? 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2. 분석대상 및 방법

2.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체육계 병역특례제도의 사회적 현상 및 인식분석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Big KINDS)'에서 '체육 병역특례' 키워드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Fig. 1과 같이 '체육 병역특례'와 관련된 기사가 연도별 기사 수에서 2018년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 검색 기간을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여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총 723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본 연구의 내용과 무관한 자료를 제외한 714건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데이터 정보는 Tabl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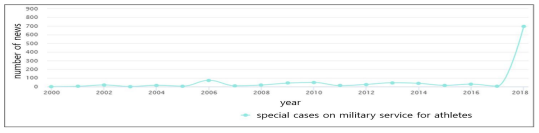

Fig. 1. Number of articles per year

Table 1. Analysis data information

	content
collection scope	Big KINDS : Korean Integrated News Database System
collection period	2018.1. 1.~ 2018. 12. 31.
search term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analytical tool	netminer 4

2.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빅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프로그램 넷마이너(Netminer 4)를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특수문자, 기호, 숫자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품사를 명사로 설정, 이형동의어를 하나의 단어로 추출하기 위한 유의어 설정, 두 개의 단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불리는 경우 해당 단어를 지정하도록 하는 지정어 설정, 한 글자 단어 혹은 '오늘', '동안', '한편' 등과 같이 분석의 목적과 거리가 먼 단어를 제거하는 제외어 설정 등의 전처리 과정을 실행하여 분석에 적합하도록 하였다. 전처리 된 자료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 latent dirichlet allocation)기법을 실행하여 토픽을 도출하였다. 잠재 디리클레 할당은 대규모 문서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주제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문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 텍스트의 집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렬하는 분석에 사용된다.

3. 분석결과 및 논의

1.1 체육 병역특례제도 관련 토픽

체육계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여론 분석을 위해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 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법을 실시한 결과 도출된 토픽과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병역특례 재조명', '병역비리 논란', '체육분야 병역특례', '예술분야 대체복무 제도', '국정감사'의 총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으며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확률분포(probability distribution)에 따른 상위 10개를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1.1 병역특례 재조명

첫 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방탄소년단', '입상자', '음악', '국위선양', '세계', '빌보드', '청장', '병무', '경연', '문화'로 구성되었다. 각 키워드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의 순수예술 분야에서는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반면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예술 분야에서는 국위선양에도 불구하고 병역특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어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이러한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은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차트 1위라는 성적을 두 번이나 올려 세계적 반열에 오르면

Table 2. Topic and keywords

topic	re-lighting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military service corruption controversy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for artists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1st keyword	BTS	Hyun-soo Jang	Heung-min Son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upervision
probability distribution	.026	.049	.026	.015	.050
2st keyword	prize winner	document	even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probability distribution	.020	.023	.017	.015	.032
3st keyword	music	evidence	championship	special cases on military service	witness
probability distribution	.016	.018	.010	.013	.018
4st keyword	elevated the nation's reputation	service	world cup	concours	Dong-yeol Sun
probability distribution	.016	.014	.009	2010	.011
5st keyword	world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japan	comment	doubt
probability distribution	.015	.014	.009	.009	.009
6st keyword	billboard	falsehood	join the army	art personnel	Un-chan Chung
probability distribution	.014	.013	.009	.009	.009
7st keyword	a director	confirmation	pro	the persons	inter-Korean
probability distribution	.014	.013	.008	.009	.009
8st keywor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vestigation	league	case	composition
probability distribution	.011	.013	.007	.008	.007
9st keyword	contest	Yong-dae Lee	country	justice	attendance
probability distribution	.011	.011	.007	.008	.007
10st keyword	culture	disciplinary action	jakarta	dance	Ji-hwan Oh
probability distribution	.010	.011	.007	.008	.007

서 빌보드차트 1등은 곧 올림픽 1등, 국제콩쿠르 1등과 동등하다는 주장과 함께 재검토 요청의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병무청장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하여 시대적 상황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와 목적, 군병역 이행 등의 형평성을 재조명하여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거나 폐지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토픽명을 '병역특례 재조명'으로 명명하였다. '병역특례 재조명'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시각화는 Fig. 2와 같다.

Fig. 2. Visualize topic and keywords

병역특례 재조명 토픽을 살펴본 결과 국제콩쿠르 입상자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순수예술 분야와 국위를 선양한 연예인들이 군복무를 해야 하는 대중예술 분야 간의 병역특례 형평성에 대한 논란으로 병역특례를 재조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병역특례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후 사회적 변화에 따라 2015년까지 개정되어왔다[1].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병역특례 대상자로 선정하는 병무청의 기준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그리고 세계적 콩쿠르 수상으로 매우 한정적이다. 그러나 병무청이 규정하는 대회 수상자 외에도 예술가, 가수, 배우, 공연기획자, 작곡가 등 그들의 실력과 공과가 인정되어야 할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여론과 선행연구[11,12]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대회 입상자만이 병역특례의 대상자로 인정 되어 병역특례 적용에 대한 형평성, 공정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케이팝과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명성을 얻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대중이 납득할 만한 제도적 개선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즉 '국위선양'의 '나라의 위세를 널리 떨친다'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객관적 지표가 마련되기 어려운 현실[12] 속에서 오히려 예체능 분야의 병역법에 명시된 병역특례 대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군복무를 마치거나,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 마땅할 만한 국가의 권위를 세운 인재들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이 적용된다면 국위선양과 인재양성이 비로소 완결되고 제도의 가치 또한 빛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1.1.2 병역비리 논란

두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장현수', '서류', '증빙', '봉사', '대한축구협회', '허위', '확인', '조사', '이용대', '징계'로 구성되었다. 각 키워드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가 봉사활동 증빙서류를 조작해 봉사 시간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배드민턴 스타 이용대 선수가 봉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을 받았으나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결론이 보도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체육계 병역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로 하여 해당 토픽명을 '병역비리 논란'으로 명명하였다. '병역비리 논란'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시각화는 Fig 3과 같다.

Fig. 3. Visualize topic and keywords

병역비리 논란 토픽을 살펴본 결과 축구 국가대표 장현수 선수의 봉사활동 증빙서류 조작 사건,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 의혹 등 운동선수들의 병역비리 논란을 확인할 수 있었다[6,7]. 병역특례 대상자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군복무를 대체하는 기간 동안 현업을 유지하면서 의무적으로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해 고찰한 Lee & Yang(2015)은 운동선수들에게 체육요원 병역특례 혜택이 현역 복무에 비해 공동체의 공공선 면에서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으며, 그들에게 응분의 보상으로서 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9]. 제도의 취지와 국가의 공공적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는 타당한 면이 없지 않으나, 병역비리 논란 사례를 재조명해볼 때 마련된 제도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병무청과 운동선수들의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사료된다. 즉 체육요원 병역특례 대상자들에게도,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도 더욱 이상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체육요원들의 도덕성을 이끌어 낼 제도의 규범적 측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며 정의롭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1.1.3 체육분야 병역특례

세 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손흥민', '종목', '우승', '월드컵', '일본', '입대', '프로', '리그', '나라', '자카르타'로 구성되었다. 각 키워드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영국 프로축구 리그(EPL)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우승을 거머쥐며 병역혜택이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이루어낸 것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월드컵의 경우도 군미필 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위해 대표팀 발탁을 염원하는 경기로 손꼽혔으며, 종목·분야마다 우승 입상 난이도가 천차만별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축구와 야구 모두 일본을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영원한 라이벌 일본에 대한 승부욕이 크게 작용한 점 등이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토픽명을 '체육분야 병역특례'로 명명하였다. '체육분야 병역특례'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시각화는 Fig 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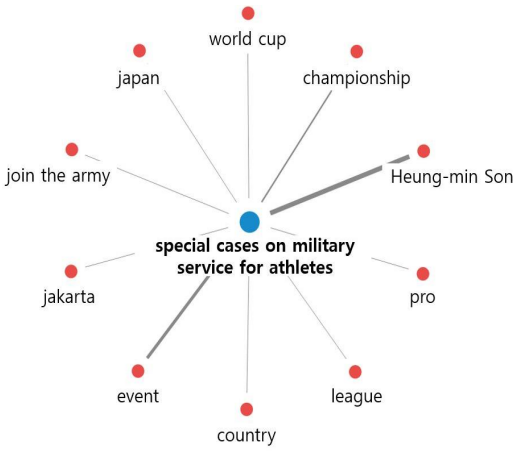

Fig. 4. Visualize topic and keywords

병역특례의 토픽에서는 영국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선수가 2018 아시안게임의 우승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져 전 국민적 기쁨으로 다가온 이면에는 결승전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국가대항전이 이루어져 여타 대회보다 훨씬 강력한 민족주의가 집단감정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9] 또한 한 몫을 담당한 것이라 사료된다. 병역특례의 토픽에 포함된 키워드 및 원문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체육계 내부에서도 모든 종목의 선수들이 병역특례의 기회를 선망하고 있으나 종목별 조건별 환경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해 공공이 납득할 만한 공정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병역특례는 당사자인 운동선수 개인의 상상하기 어려운 인내와 고통의 결과물인 동시에 국가적인 영광의 의미 또한 크므로 비인기종목을 포함하여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병역특례 점수제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13] 또한 선수들의 재능낭비나 우수선수의 조기 은퇴 초래 등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개선책 마련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1.1.4 예술분야 대체복무 제도

네 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대체복무', '국방부', '병역특례제도', '콩쿠르', '의견', '예술요원', '관계자', '대상자', '공정', '무용'으로 구성되었다. 각 키워드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국방부가 2022년까지 체육·예술요원의대체복무의 전면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만의 독특한 대체복무 제도인 예술체육 특기자 병역특례 제도는 체육대회와 콩쿠르가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전혀 다르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예술가들의 병역특례를 콩쿠르 등수만으로 매긴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이라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해당 토픽에서는 예술특기자의 병역특례에 있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해당 토픽명을 '예술분야 대체복무 제도'로 명명하였다. '예술분야 대체복무 제도'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시각화는 Fig 5와 같다.

예술분야 또한 병역특례가 있으며 체육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성의 문제가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에서도 나타났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성악전공 대학생들의 적발[4]에서도 나타나듯, 무용수들 또한 경력단절과 경제단절을 군복무 후 무용수로서 지속 면에서 가장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14].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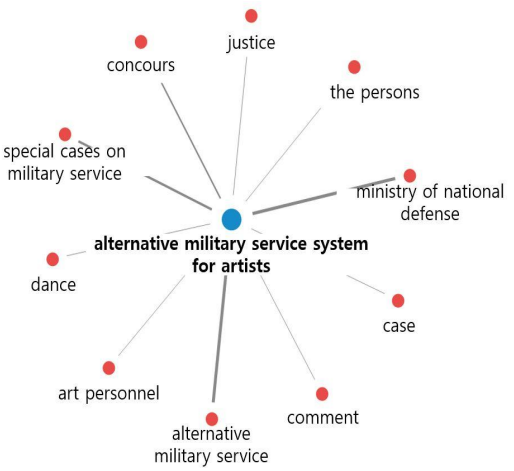

Fig. 5. Visualize topic and keywords

미술, 무용 등의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예술요원 역시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 키워드에 나타난 것처럼 체육계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나타남을 확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1.1.5 국정감사

다섯 번째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는 '감독', '국정감사', '증인', '선동열', '의혹', '정운찬', '남북', '구성', '출석', '오지환'으로 구성되었다. 각 키워드의 원문을 확인한 결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대표팀 오지환 선수의 병역특례 혜택을 얻게 되면서 대표팀 선발에 오지환 선수의 군면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사 선동열 감독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데 이어 정운찬 KBO 총재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축구 단일팀을 추진하였으나 남북 화해 기여보다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특례와 직접적인 연결성이 우선되어 실현되지 못한 점에 대한 아쉬움 등 아시안게임 이후 다각적 원인으로 인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의 강력한 요구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토픽명을 '국정감사'로 명명하였다. '국정감사' 토픽을 구성하는 키워드의 시각화는 Fig 6과 같다.

아시안게임에서의 일부 자격미달 선수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은 대중의 분노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을 뿐 아니라 BTS와 같은 대중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 논의, 그리고 BBC를 비롯한 세계적 언론의 관심과 함께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 감독과 정운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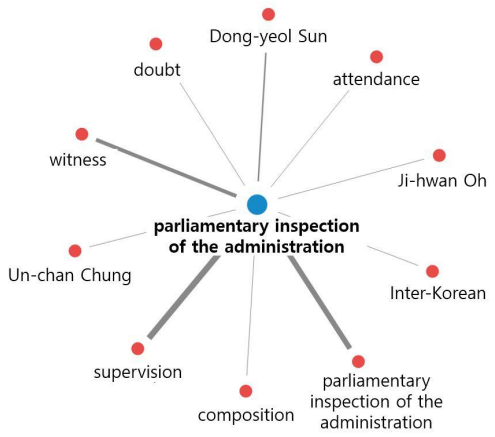

Fig. 6. Visualize topic and keywords

재가 국정감사에 소환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다[12]. 결국 우수선수의 경기력 향상 연금제도와 병역특례 문제는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중 하나로 재검토 혹은 폐기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15].

물론 일부 자격미달 선수의 병역 특혜가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으나 병역법에 명시된 병역특례의 기준은 그 적용에 있어서 모호함과 일관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객관적이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는 최근과 같이 BTS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병역 특례의 기준에 없는 기능올림픽, 청소년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그 밖의 국제적 영화제 등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다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불필요한 박탈감이나 상대적 불이익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이 공정한 사회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므로 체육계 병역특례 개선책의 무게가 막중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여론에만 귀 기우릴 것이 아니라 일부 병역특례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 또한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완전 폐지가 아니라면 공정성과 중요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논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하여 2018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체육계 병역특례와 관련된 여론, 관점과 흐름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사회적 현상 및 인식을 분석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사회적 현상에서 속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잠재 디리클레 할당 기법을 실행하여 토픽을 도출하고 시각화 하였다. 도출된 토픽은 '병역특례 재조명', '병역비리 논란', '체육분야 병역특례', '예술분야 대체복무 제도', '국정감사'의 5개이다. 이는 체육계 병역특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정의롭고 평등 부담원칙에 부합되면서도 스포츠선수의 특성이 고려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할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한국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정성이 확보되기 위하여 어떠한 점이 보강되고 고려되어야 할 자룰 탐색하여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P. W. Kim. (2018.9.5.). delve into the details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Money today.*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90419002726757

[2] K. R. Kim. (2018.11.1.) "No military service, no prison," The ball goes to the National Assembly. *Newspim.*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1101000461.

[3] K. H. Choi. (2019.1.9.). "Fake attendance and substitute." KAIST Special Military Service Appearances. *Newstapa.,* https://newstapa.org/44022

[4] D. H. Sung. (2018.9.11.). deliberated over weight control the prosecution's dispatching. *News1,*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680261&memberNo=11567548&vType=VERTICAL)

[5] J. Y. Kim. (2018.12.21.). More than half of the special military service's performance is false.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211934471320

[6] J. M. Ryu. (2018.9.7.). From Oh Ji-Hwan to BTS' Broke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lock. *Daily truth news24,*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24772)

[7] D. H. Kim & M. J. Sung. (2015). Improving military sport policy for young talented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 Law. 18*(3), 51-73.

[8] H, J, Lee. (2017). Measures to Secure Equity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 *The korean journal of sports law, 20(1), 71-95.*

[9] J. K. Lee. & J. S. Yang. (2015). Theoretical Perspectives of Justice on the Military Service Privileges of Korean Athlete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4*(6), 63-79.

[10] S. J. Son. (2011). A legal study on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9*(2), 109-122.

[11] N. H. Kim, J. W. Jeong. (2018. 12. 19.). OOOO becomes Son Heung-min and not BTS. As it turns out. *Moneytoday.*.,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1417357628909

[12] S. I. Kim. (2018). Controversy over Special Military Service Cases between Oh Ji-hwan and BTS. *Cultural science, (96),* 265-278.

[13] S. G. Kim & B. S. Kim. (2013).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Elite Athletes Development-Related Institutions. *Sports science, 31(1),* 21-28.

[14] Y. J. Kwon & J. Y. Lee. (2018). 'Son of God' : Perception and Experience on Military Service Exception of Male Dancers in Ko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387-395.*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8.16.4.387

[15] J. H. Kim. (2019. 1. 25.) Review of the Military Service and Pension benefits for Winners in International Sports Meet. *Jungang Ilbo.*
https://news.joins.com/article/23323155

이 현 정(Lee, Hyun Jeong) [정회원]

・원광대학교 스포츠관리학과장
・1급생활스포츠지도사연수원장
・원광대학교 체육실장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E-Mail : isamlak@wku.ac.kr

한 혜 원(Han, Hae Won) [정회원]

・2000년 6월 : 단국대학교대학원 체육학과(이학박사)
・2008년 3월 ~ 2017년 2월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겸임교수, 초빙교수
・2018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생활체육과 초빙교수
・관심분야 : 스포츠사회학, 생활무용
・E-Mail : han1565@hanmail.net